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순항'...월 임대료 1만원

‘입주문의’ 쇄도...이달 중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최소화...정착 도움 되길”

화순군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 정책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임대료 부담을 월 1만 원으로 한정할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가 안정되면 인구절벽에 따

른 화순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 1년 100호씩 4년간 총 400호 공급 목표
화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92억 원이다. 4년간 총 4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단, 퇴거 시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으로

환수된다.

◆ 4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7월 입주 시작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2022. 9. 27. ‘민선8기 제48대 화순군수 공약사항 계획’ 수립 △2022. 12. 14. (취부영주택 양해각서(MOU)체결 등을 통해 큰 틀을 완성했다.

일정대로라면 △4월 입주자 모집 공고 △5월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 △6월 입주자 선정 △7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 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의 미래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게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화순군은 문화관광·백신·부자농촌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전력반도체산업 육성위원회 출범

국내 최고 산·학·연 전문가 머리 맞대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육성 박차

나주시가 전 세계적인 산업 이슈이자 국가 경제 안보 핵심 기술 분야로 평가받는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력반도체는 전기·전자제품에서의 직류·교류 변환과 전압, 주파수 변화 등의 제어·처리를 수행하는 반도체를 의미한다. 스마트폰, 노트북, 백색가전 등에 주로 활용되며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로봇·전기차 분야 등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와 에너지·전력공기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등 우수한 산·학·연 여건 강점에 기반해 전력반도체 분야 조력자 기술혁신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는 이를 위해 해당 분야 국내 최고 권

위 교수·전문가, 연관 산업협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7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식을 겸해 부위원장·분과위원장 선임, 에너지반도체산업 육성의 필요성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윤병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최고 전력반도체 전문가분들과 나주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력반도체 육성의 첫 출발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요 업체 유치와 연구·실증 인프라 구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곡성의 맛을 알리는 '맛다곡성'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곡성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결과평가회 개최

곡성군이 6일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공동브랜드로 개발된 '맛다곡성' 브랜드 디자인 결과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맛다곡성'이라는 상표명으로 개발된 곡성군 농산물 가공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고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사였다. 또한 곡성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생산된 농특산물 브랜드 포장품을 전시하고 개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지역 내 가공업체인 20여 명은 상표를 활용한 포장상자와 소포백 등도 전

시해 평가하고, 보완할 부분이나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맛다곡성' 상표를 공동으로 활용할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곡성을 신월리에 부지 1,376㎡에 건물 836㎡로 건립했다. 2021년에는 실시설계 및 건축 작업을 진행했고, 2022년에는 가공기 장비를 도입해 농산물 가공을 더욱 활성화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2023년 5월 중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건립을 통해 각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농가가



가공 사업장의 투자 없이도 상품 개발, 상품화, 식품 가공 장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산물 가공 활동의 보급과 확산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곡성=양해영 기자

구례군, '구례 산동 캠핑 페스티벌' 개최

나흘간 산동 산수유축제장 일대

구례군은 4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산동 산수유축제장 일대에서 '꽃 피는 봄이 왔다 구례로 모이자'라는 주제로 '구례 산동 캠핑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아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획했다. 19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캠핑 커뮤니티인 '달구지 캠핑' 회원 250팀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했다. 군에서는 전남 방문의 해 홍보와 구례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고향사랑 기부제, 전남 쌀 소비 촉진 홍보 부스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장터와 먹거리 부스, 한우농가 돕기 특별할인행사 등을 마련했다. 또한 어린이 참여자들을 위해 반달가슴곰 키링과 낭비불기 예코백 등 국립공원 굿즈 상품을 증정하는 '구례&국립공원 퀴즈'를 진행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 경품 행사, 구례 농산물 꾸러미 이벤트 등으로 행사에 열기를 더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2023년 상반기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담양군은 민선 8기 군정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2023년 상반기 담양군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군민과 공무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며 소통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공모전은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군정 발전을 위한 생각을 가진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민선 8기 군정방침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와 불편한 현행 제도 및 규제 개선(생활공감정책)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